

2021 사사로운 사이

사람과 사람 간 일상을 공유하는 모임.
글쓰기로 자신을 표현하고 삶의 지평을
넓혀 나갑니다.

경기생활문화센터

경기도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생활문화의 허브.
도내 생활문화센터를 아우를 수 있는
광역생활문화센터로 발걸음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임시 송재은

글쓰기 모임을 운영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삶을
기록하고 써내려 가는 일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instagram @project_imsi

표지 사진 Asher Ward

사사로운 사이

사사로운 사이

사람의 숲을 거닐며

함께 쓴 사람들

동틀
벽난로
생자
소랑
오로라
잭잭
타다닥

사람의 숲을 거닐며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사사로운 사이

들어가며

경기문화재단 본부장 주흥미

‘사사로운 사이’는 이름 그대로 일상에 대한 사사로운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생활예술인들이 엮어낸 이 글은 그래서 무엇보다 더욱 특별합니다.

참여자분들의 참여 동기를 살펴보니 코로나19로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 때,

‘내가 느꼈던 감정과 그 순간을 함께 나눌 수는 없을까?’ ‘나도 글을 써볼까?’ 하는 작은 용기가 일상의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여자분들은 7일간 온라인에서 글을 통해 만났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사는 곳도 밝히지 않고 오롯이 글로 대면함으로써, 자신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글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은 내가 주체가 되었을 때 더욱 가치 있는 것이었고 또 생각보다 예술은 나와 가까웠습니다. 잔잔한 일상의 이야기가 예술언어가 되는 그 창조적 시작에 앞으로도 경기문화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총 일곱 명이 필명으로 적어 내려간 스물여덟 편의 글, 그리고 ‘생자’로 활동한 네 명의 경기생활문화센터 팀원들을 소개합니다.

사람의 숲을 거닐며

사사로운 사이 모더레이터 송재은

글쓰기 모임을 운영한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다양한 성격과 외모의, 넓은 연령대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글을 쓰는 시간에서 제가 찾는 지향점은 우리가 글을 쓰기로 한 사람들인 만큼, 편견과 오해의 요소를 '글'로 한정하기입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채로 글을 공유하고 서로의 글에 피드백을 하고, 모임의 마지막 날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밝은 빛은 대상을 가린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내가 상대를 잘 안다는 생각만큼 오해의 여지가 큰

생각이 있을까요. 한 사람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것은 늦어질수록, 천천히 생각할 여유를 가질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나를 누군가 하루 만에, 첫인상에 판단하지 않기를 바라는 만큼, 저도 제가 타인을 쉽게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숲속을 산책하며 나무 내음을 들이마시듯 책 속에 담긴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와 같은 날을 살아가는, 나와 전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들을 기회가 여기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쉽게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자신조차도 자세히 들여다본 적 없는 생각을 꺼내 정리해둔 이야기들요.

주변을 둘러보지 않고 무심코 지나쳤던 날들을 지나, 자세히 들여다보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또 내쉬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사로운 사이 속 이야기가 그 계기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순서

- 들어가며, 4
- 사람의 숲을 거닐며 6
- 목차 8
- 참여자 소개 10

1장 변화

- | | |
|-------------------|--------|
| 나와 내가 아닌 나 18 | 타다닥 |
| 겨울과 봄이 힘 겨루는 달 20 | 동틀 |
| 좋아보이는 물건이라고 | |
| 다 가질 순 없으니까 24 | 벽난로 |
| 해소가 주는 변화 28 | 소랑 |
| 등가교환 32 | 생자(교자) |
| 변화 36 | 잭잭 |
| 이제 난 온전히 네 편이야 40 | 오로라 |

2장 물건

그 시절 내가 나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 46

취미 부자네 50

켜켜이 쌓아둔 것 54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는 마음 56

또 다른 나 60

아무것도 아니다 64

물건 66

벽난로

오로라

생자(공자)

소량

동틀

타다닥

잭잭

3장 몸

높지대를 지나서 72

작은 생명체 76

가을 아침 산책 78

지구라는 그릇 82

빛과 상환 84

고양이의 위로 88

삼겹살이 0겹살이 되는 날 92

오로라

타다닥

소랑

동틀

생자(홍자)

벽난로

잭잭

4장 첫인상

육아의 첫인상 96	동틀
극단의 오류: 그 누구도 관찮지 않은 결정 100	소량
누군가에 대한 스케치 104	벽난로
즐거운 설렘과 만남 108	생자(동자)
고마워, 첫인상 112	오로라
첫인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114	타다닥
도를 아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니시구요? 118	잭잭

사사로운 사이 참여자 소개

동틀

-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시 향남읍에 사는 동틀입니다. 산책과 라이딩, 시 쓰기를 즐겨합니다. 화성엔 결혼 후 정착했고 육아를 하며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며 나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됐을 즈음 저도 이 사회에 긍정적인 쓰임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업맘들도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는게 저의 꿈입니다.

벽난로

- 잠시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언제나 나를 사랑하는 중입니다.

소랑

- 웃음이 별로 없고 조용하게 하루를 보냅니다. 책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 소설에 도전하기 위해 글쓰기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글을 쓸수록 나만 이해하고 좋은 글이 아닌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고 공감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글을 써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사사로운 사이를 통해서 서로의 글을 나누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습니다.

생자

- 경기생활문화센터의 센자(센터장)를 중심으로 공자(공모 담당자), 교자(교류 담당자), 동자(동호회 담당자), 홍자(홍보 담당자)로 구성된 4명의 팀원들. 매일매일 생활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오로라

- 이번 글쓰기와 피드백을 통해 자기 성찰 글쓰기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인생의 목적인 복극성을 향하여 나침반의 축을 끊임없이 맞추며 살고자 합니다. 네 자녀를 둔 어머니며 현재 고등학교에서 생명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마음은 이십대이나 손자, 손녀가 생겨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되어도 늘 현재가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합니다.

재재

- 먹고 살기 바쁜 평범한 대한민국의 소시민입니다.

'언젠가는 무언가 대단한 글을 쓸 수 있을거야',
라며 긴 글을 써보겠다는 거창한 다짐을 하지만
늘 현실에 밀려 짧은 글만 쓰고 있네요. 그래도
제 글을 통해 누군가에게 작은 재미나 감동을 줄
수 있다면 만족입니다.

타다닥

- 글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와 내가 아닌 나

\
타다닥

가만히 주위를 둘러본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에 구름이 흘러간다.

창 아래 아내가 아이를 안고 달린다.

다른 아이는 저만치서 재잘 거린다.

나는 그저 앉아서 가족을 보고 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낯설어진다.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꿈을 꾸는듯하다.

문득 어떤 무게가 나를 짓누른다.

더 깊숙히 들어와 마음이 무거워진다.

숨 쉬는 것도 힘들어진다.

생각하는 것조차 힘들어진다.

창밖의 하늘에 더 이상 구름이 없다.
창 아래의 아내와 아이들이 익숙해진다.
그들의 목소리로 마음은 가벼워진다.
아이를 안으면 나는 다시 내가 된다.
평화로운 일상 속에 내가 된다.

난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아닌 내가 된다.
내가 아닌 내가 되어 나로 돌아오지 못할까 봐
겁이 난다.
나는 그저 앉아서 가족을 보고 있다.

해소가 주는 변화

\
소량

몽상

하루 중 어느 순간에 하얀 벽의 구석을 바라보다가 이내 멍때리게 된다. 멍을 때릴 때마다 보이는 기록 같은 영상이 눈 너머로 지나가곤 한다. 추운 날 안개 속으로 햇빛이 내리며 소의 콧등에 닿기 시작하는 시간에 흰 털이 송송 난 누렁소의 입과 코에서 내뿜는 김이 오르는 되새김질을 떠올리곤 한다. 그리고는 마른 사막 한 가운데 쉬고 있는 낙타의 흠물거리는 혀에 침이 범벅된 축축한 되새김질이 아주 잠깐 스치다가 또랑또랑한 타조의 눈망울이 스치기도 하고 최종엔 다시 누런 소의 눈이 나를 향하며 원망하거나 슬프게 눈물을 흘리더니 이내 사라져

버린다. 마치 꿈을 꾸듯이 그 이미지가 스치듯 지나가지만 이런 과정의 몽상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떠오르곤 사라진다. 요즘 직장 스트레스가 많아서인지 육식을 하는 내 모습에 대한 죄책감인지? 이내 뭔가 골똥히 생각해보다가도 그 이유를 도통 모르겠다. 이 몽상은 눈을 뜬 채로 잠깐의 꿈을 꾸고 깨어난 것 같기도 하고, 순간 한숨을 깊게 쉬고 난 후 같기도 하다. 소의 되새김질로 소화되어 위장이 편해지듯이 뇌에도 휴식을 주는 듯하다. 그 짧은 순간에 아무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다.

꿈

꿈에 큰 의미가 없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나의 경우 꿈속의 이야기가 강렬하게 남을 때는 다시 기억하기 위해 일기를 쓰듯이 머릿속에서 여러 번 기억하고 앞뒤 순서를 논리적으로 맞춰보려고 애쓴다. 그리고는 그 기억의 중심 이야기를 가까운 누군

가에게 꼭 얘기한다. ‘내가 이런 무서운 꿈을 꿨어.’ ‘어제 정말 영화 같은 스토리로 꿈을 꿨다니!’ 하루 중 몇 분은 꿈 이야기를 되뇌며 이런 사건의 영화나 드라마가 나오면 재밌겠다 하면서 생각한다. 간혹 반복되는 꿈을 꿀 때가 있는데, 그 꿈을 꾸던 날이나 이튿날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더듬어보기도 한다. 그렇게 기억을 더듬어 가다 보면 결국, 별일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하지만 어쩌다가 나쁜 꿈을 꾸기도 한다. 이가 썩거나 빠지거나 하는 등의 꿈을 꿀 때는 좋지 않은 일들을 겪었던 기억이 있다 보니 실제로 치아가 좋지 않은 꿈을 꾸는 날은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이다. 가족들에게 걱정되니 나가지 말라는 등 주의시키고 각별한 신경을 쓴다. 이런 종류의 꿈을 꾸 아침에는 뒤송송하면서도 오후엔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불안하고 힘들 때, 무당에게 찾아가서 나의 미래를 예언 받고 나쁜 운을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 듯이 꿈을 통해 큰 변화가 닥칠 것을 미리 대처할 마음가짐을 갖게 도와주는 것 같다.

변화

올챙이의 뒷다리가 생기듯이
도마뱀이 꼬리를 끊고 도망가듯이
새가 알껍데기를 부리로 깨고 나오듯이
바닷물 속 뜨거운 햇빛으로 소금이 되듯이
애벌레가 번데기를 가르고 날개를 펼쳐내듯이
더럽고 지저분한 흙탕물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듯이
먼 바다로부터 돌아오는 연더르의 피부가 헤쳐지듯이
생과 사를 사이에 두고 우리가 변화하는 이유는 결국
고된 인생 속을 살아가며 견디는 이유는 결국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결국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이유는 결국
성공을 하고 싶은 이유는 결국
사랑.

겨울과 봄이 힘 겨루는 달

\
동틀

바람이 분다. 아이들과 늦은 오후 외출을 한다. 남편이 통근차를 타고 회사를 다니는데 하필 늦잠 자서 자차를 끌고 가버렸다. 귀찮다. 혼자라면 걸어도 되고 뭘 타든 상관없는데, 아이들과 함께일 때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다. 오늘처럼 바람 불고 추운 날에는 더 그렇다. 고민을 잠시 해본다. 첫 번째 콜택시를 불러야겠다. 콜택시로 10분여 거리 이동하면 5천 원 전후로 요금이 나올 거다. 전화를 걸어본다. 콜 센터 직원이 하는 말 “나중에 다시 전화하세요!” 인구 대비 작은 동네라 택시가 부족하다. 기사님들은 짧은 거리는 콜거부를 한다. 그렇다고 길에서 잡을 수도 없다. 손들어도 휙 하고 지나쳐버린다. 지정된 장소 외에는 탈수도 없다. 끌어 오르는 화를

가라앉히며 마을버스를 타러 간다. 3천 원이면 된다. 그래 차비도 아끼고 좋지 뭐! 자그마한 마을버스 안에 덩치 큰 남학생들이 여럿 타고 있자 금세 가득 찼다.

아직까진 꽃샘추위가 한창이라 두툼한 옷들로 무장한 사람들.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느껴진다. 사람들이 탈 때마다 거친 바람이 물결처럼 밀고 들어온다. 그것도 태풍급이다. 눈이 시리고 발이 시렸다. 주머니에 얼른 손을 집어 넣는다. 아이 들고 버스 중간쯤 자리를 잡았다.

아직 겨울은 떠나가기 아쉬운 건지 차가운 숨바람들 몰아신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한기에 몸을 부들부들 떨고, 거리의 현수막들은 복식호흡을 하는지 숨을 들이쉬고 내신다. 이때 등장하는 노랑비닐봉지는 바람에 나풀나풀 나비가 되어 춤을 추고 있다. 그 뒤로 긴 치마를 펄럭이고 등장한 여인은 정면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를 갸웃갸웃 짝 움츠린 어깨를 한쪽으로 내밀며 바람을 거스르자 치마가 좌우로 요란하게 팔짝거린다. 자동차에서 바라보는

풍경과 버스에서 바라본 풍경이 많이 다르다. 부릉 부릉 부르르르~ 시동 소리가 들리더니 기사 아저씨가 운행을 시작한다. 엔진의 진동음, 바퀴가 지면에 닿는 움직임, 방지턱 넘어갈 때의 덜컹거림, 말을 타듯 사람들의 몸도 같은 박자로 리듬을 탄다. 느릿한 시간 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 같다.

이 버스가 겨울에서 봄으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봄은 어디쯤 오고 있을까? 바람이 분다. 아줌마 마음에도 꽃이 핀다.

좋아보이는 물건이라고
다 가질 순 없으니까

\
벽난로

얼마 전 나는 아무런 갈등이 없었던 2년 남짓의 연애를 끝냈다. 연애를 할 때 항상 이별을 통보받는 입장이었던 내가 먼저 이별을 이야기하다니. 나는 입 밖으로 헤어지자는 말을 내뱉으면서도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내가 이별을 결심한 이유는 내 삶에 연애가 필요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이유는 남자친구에게도, 지인들에게도, 심지어 때때로는 나에게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별 문제 없는 사람인데 굳이 헤어질 것까지 있을까. 나중에 후회하게 되지는 않을까. 남자친구는 내가 이별을 원하는 이유가 막연하게 불안해서 도망치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나의 회피적인 특성을 이해해줄 사람은 자기밖에 없으니 도망치지 말라고 말했다. 하지

만 나는 애초에 너의 고백을 거절하지 못했던 게 진정한 회피였고 나의 실수였다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말았다. 결혼적령기에 접어든 여자가 만나는 남자라도 있어야 부모님으로부터도 사회적으로도 덜 압박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이 관계를 시작한 첫 출발이었기 때문이다.

연애를 하는 동안 나는 굳이 필요도 없고 어울리지도 않는, 그저 다른 사람에게 좋아보이는 물건 하나를 집 안에 들여놓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좋아 보이는 물건이라고 다 집 안에 놓을 수는 없듯이 나는 나에게 필요하고 어울리는 것들을 조금씩 신중하게 모으고 싶었다. 그러나 당시 나는 그런 나의 마음을 회피했다. 누군가 디저트를 주었는데 굳이 버릴 이유가 없으니 그냥 집으로 가져와버린 것이다. 그건 참 달콤했지만 배가 고플때마다 습관처럼 손이 가서 이내 속을 더부룩하게 만들었다. 그때서야 나는 내가 적당한 비움과 허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다. 뒤늦게 나는 나를 위해 용기를 냈다. 그 방식은 서툴고 미숙해서 오랜 시간 고맙고

애썼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지만 말이다.
이별을 한 뒤 나는 세상이 무너지거나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것만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서른이 넘어서야 처음 깨달았다. 불안한 선택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선택이라면 만족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등가교환

\
생자(교자)

꽤 잠이 없었다. 어렸을 때부터 새벽을 따라다녔고,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 잠들었다. 잠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잠과 친하지도 않았다. 잠들기 어려웠고, 들어도 자주 깼다. 한 번 도망간 잠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잠을 이기기 위해 커피를 마신다는 생각은 누가 처음 한 것일까. 자연스레 커피도 마셔볼 기회가 없었다. 달짝지근하고 텃텃한 믹스커피도 스물이 넘어서야 처음 마셔보았다. 더운 여름날 시험공부를 하면서 친구를 따라 아이스커피를 처음 마셔본 기억. 신기하게도 가슴이 콩닥거렸다. 사랑에 빠져들 것만 같았다.

내게 커피를 가르쳐준 건 빵집 사장님이었다. 근무하는 동안은 본인이 내린 커피 한 잔을 공짜로 마

실 수 있었다. 나는 커피를 내리는 법은 배웠지만, 매번 물만 마셨지 커피를 마셔본 적은 없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커피 맛이 너무 쓰다며 커피를 거의 입도 안 대고 돌려주셨다. 그 커피는 내가 내린 커피였다. 속상한 마음에 남긴 커피를 살짝 덜어서 맛을 봤는데, 다른 스텝이 내린 커피보다 내가 내린 커피에서 쓴맛이 두드러진다는 걸 알았다. 내가 잘 못 내린 것이었을까. 핸드드립도 아니고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힘껏 내리는 커피였는데. 사장님은 친절하게 커피 내리는 법을 다시 알려주셨다. 머신으로 우유를 데우는 법, 가벼운 라떼 아트를 하는 법, 그리고 원두를 관리하는 법 같은 것들. 내 손보다 원두를 타하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몰랐지만, 그땐 너무 어렵다.

이상하게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순간부터 잠이 많아졌다. 커피를 마셨는데도 머리만 대면 베개가 아니라 버스에서도 곧잘 잠을 잤다. 방광염이 생긴 것도 그맘때였을 것이다. 빵집에서 일하다 보면 화장실을 자주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방광염은 고

질병이 되어 지금도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면 어김 없이 찾아온다. 나는 그래도 커피가 좋았다. 우유를 넣은 라떼도 좋았고, 기분이 안 좋은 날에는 바닐라 시럽을 넣는 것으로 스스로를 달랬다.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순간이지만, 잠은 더 이상 덜어낼 수 없었다. 더는 미룰 수 없어 나는 나와 타협했다. 커피는 하루에 한 잔만 마시기로.

변화

\
책책

‘변화하기 위해선 환경을 바꾸고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누가 그러더라. 금년의 나는 분명 잘못된 곳에 있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벗어나야만 한다, 이곳을. 그래서 결심했다. 과감히 정리하기로. 다수의 단톡방을 나오고 불필요한 모임을 피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보다 내면의 세계에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책을 더 읽고 공부하고, 내공을 키워야 할 시점이다. 불필요하거나 덜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번민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갖춰야 할 시기인 것이다. 금년말로 일도 그만두게 되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안해 보이겠지만, 글썸, 어차피 평생 직장이란 없는 시대

에 살고 있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테크라든가 금융에 대해 공부할 시간을 더 가져볼까 한다. 또 하나는 창의적인 (짧은 시나리오 같은) 글 쓰기에 시간을 더 할애할 예정이다. 요즘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분석적인 활동만 하다 보니, 내 장점인 창의성이나 상상력을 살리지 못하는 게 느껴지니까. 원래 생각만 하던 것을 다시 한 번 도전해보아야겠다.

책도 좀 더 읽어야 한다. 분명히 업데이트가 필요거든. 최근의 블록체인이거나 NFT 흐름도 잘 파악하지 못해 기회를 놓쳐버렸다. 누군가는 몇 억을 벌었다고 하던데, 너무나도 아쉽다. 예전에는 책을 습관처럼 읽었는데, 요즘은 너무나도 재미있는 유튜브 - 유튜브, 넷플릭스, 커뮤니티 - 가 많다보니, 책과 멀어지게 되었다. 단순한 정보를 얻거나, 재미를 추구하기에는 그러한 매체들이 적당하지만, 확실히 깊은 생각을 해가며 통찰력을 키우기에는 책 만한 매체가 없는 것 같다. 빌게이츠니, 워렌버핏이니 유명한 사업가, 투자자들 중에 독서광이 많은 것만 봐도, 독서는 분명 꼭 필요하다.

변화는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 생각과 고민은 적당히 하고, 아주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고자 마음먹었다. 지금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이 그 시발점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자기변화를 생각하는 모두들, 지금 바로 시작하자.

이제 난 온전히 네 편이야

\
오로라

이른 아침 창밖으로 보다가 고운 단풍숲이 눈에 들어왔다. 가을을 제대로 느끼고 싶어서 밖으로 나갔다. 코끝을 스치는 찬바람이 기분 좋아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아~ 이게 얼마 만인가.’ 싶었는데 거울로 뒷모습을 보는 것처럼 약간 낯선 듯 새로운 내가 보인다. 내가 또 다른 나에게 귀를 기울이자 친밀하게 말을 건넨다

“내가 보기에 너는 [꽃들에게 희망을] 책의 애벌레처럼 성취라는 기둥을 따라 사느라 바빴더구나. 괜찮은 척 애써 참으면서 잘도 버텼네.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가치있는 것을 알아보고 계속해 나갈 줄 아는 인내심, 소심해 보일 때도 있지만 섬세하게 배려하려는 네 의도를 알아.

그런데 말야. 너는 꽤 오랫동안 남이 만들어놓은 기준과 프레임에 갇혀 살았더구나. 그걸 지금이라도 안 게 참 다행이야. 많은 실패와 실수가 보여서 때로는 얼굴이 붉어지기까지 하지? 사실 그 실수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어. 너와 타인의 죄에 대한 인식, 용서의 경험, 그 사건을 경험하기 전과 후, 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잖아. 똑같은 상황이 네게 닥쳐온다면 아마도 훨씬 더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을 거야. 우물 안에서만 봐왔던 동그란 하늘과 밖으로 나와서 본 하늘은 비교할 수도 없는 거지.

독특한 자연적, 사회적 환경 속에 살아낸 한 사람의 경험치는 누구도 복제할 수 없고 값으로 매길 수 없어. 가치있고 소중한 이유는 너의 고유성 때문이라는 거 알지? 해답을 다른 사람에게 찾지 말고 먼저 네 안에서 찾기를 바래. 실수는 너를 성숙하게 해준 거름이 되었다는 것도 잊지 마. 성장 이야기는 계속 쓰고 있는 거니까 느긋이 삶을 예술같이 살아줘. 살면서 누가 거부하더라도 두려워 말고 너의 존

재를 평가절하 하지 마. 너의 어머함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의 사정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

내 눈에는 네가 산후우울증을 겪으며 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더니 이제 나비가 된 것 같아 보여. 자아의 경계가 너를 넘어서서 조금 더 확장된 게 보이거든. 너와 너 사이,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만드는 법을 알았잖아. 아직은 뭘 해야 할지 어리둥절할 테지만 분명한 건 네가 너의 약점까지 온전히 끌어안을 줄 알게 된거 작은 일 아니거든. 그건 다른 사람의 약점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긍정히 여길 수 있다는 뜻이지. 무엇보다 너와 화평하게 지내게 된 것을 축하해!! ”

아무튼 이제 네가 온전히 나의 편이 되어준다니 참 좋다.

그 시절 내가 나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

\
벽난로

나는 2013년에 첫 직장을 다녔다. 신입사원이었던 나는 가장 먼저 출근해 사무실 문을 열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사장님이 보실 신문들을 종류별로 사장님 책상에 펼쳐놓고, 화초에 물을 주고, 탕비실을 정리하는게 하루 업무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면 선배들이 출근할 때까지 잠시 나만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때 불을 켜지 않은 사무실을 멍하게 바라보던 시간이 마치 아침 루틴 같았다. 지금도 그 회사에서 있었던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침의 그 순간이다. 최대한 멍해지려고 노력했던 순간. 당시 나는 대학을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내가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는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출판사는 당연히 야근이 많고 아침에 일

찍 출근하는 거라는데 적응을 하지 못하는 내가 스스로 막막하게 느껴졌다. 호탕하고 농담을 좋아하던 사장님이 회의 도중 얼마 전 결혼한 선배에게 남편이 밤일은 잘 하냐고 물으면 이게 무슨 상황인지 금방 헤아려지지 않았고 선배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으니깐 나도 얼굴이 굳으면 안되는건가보다 했었다. 그 회사에서 받은 첫 월급이 140만원 남짓이었다. 그때 나는 어디서 본 건 있어서 퇴근 후 회사 옆 교보문고에 들러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샀다. 양손 가득 선물을 샀는데도 무려 통장에 100만원이 넘는 돈이 남아있었다.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나는 나를 위해서도 무언가를 사고 싶어졌다. 뭘 사면 좋을까 곰곰이 고르다 눈에 들어온 건 지갑이었다. 왠지 앞으로 계속 돈을 벌 거니까 예쁜 지갑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을 고르고 골라 내가 고른건 카드가 3장까지 들어가는 노란색 카드 지갑이었다. 나는 어찌다 보니 그 지갑을 아직도 쓰고 있다. 가족이 군데군데 벗겨지고 때가 줄줄 흐르는데도 손에 익고 편하다는 이유로 말이다. 오늘쳐

럼 우연히 책상 위에 놓인 카드지갑에 눈길이 닿을 때면 이 지갑을 샀던 사회초년생의 내가 떠오른다. 힘든 것이 힘든지도 모르고,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줄도 모르고, 버텨야만 한다는 정답을 정해놓은 채 막막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던,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렸던 내가.

취미 부자네

\
오로라

나는 호기심 많은 취미 부자다. 하고 싶은 일 한 가지를 위해서라면 하기 싫은 일 열 가지도 마다 않는다.

취미 중에 첫 번째는 연설클럽 토스트마스터즈에서 활동한 것이다. 2013년 1월부터 2017년까지 약 4년간 매주 꾸준히 참여했다. 대중에게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고 싶었다. 동시에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클럽(계블 클럽)을 만들었는데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뛰곤 했다. 몇 주만 지나도 크게 발전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던 기억이 난다.

두 번째 취미는 옷을 만드는 일이다. 작년부터 옷 만들기 책을 들여다보다가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네’ 싶었다. 원피스 몇 장을 만들고 나니 기대 이상으로 만족스러웠다. 좋아하는 일본 디자이너의 책을 구입하여 익히곤 했다. 원하는 스타일과 직접 고른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을 때는 창작의 기쁨이 생겼다. 주변에서 아마추어인 셈 치고 잘 만들었다고 신기해한다.

세 번째 취미는 빵을 만드는 일이다. 어릴 적 큰 올케가 결혼하면서 세계 요리 백과를 가져왔다. 화려한 빵을 보면서 언젠가 만들어보리라 꿈꾸었던 일이다. 제빵 도구와 재료를 갖추고 따라 하니 점점 자신감이 생겼다. 잘 만들어질 때는 내 마음도 발효 빵처럼 부풀어 오른다. 이웃에게 빵을 만들어 나눌 때, 내 마음도 따듯하고 기분이 좋다.

좋아하는 일이 취미라고 하면 육아 품앗이가 있다. 2002년 주민자치센터에서 육아 품앗이를 창단하여 2년간 참여하고 8년간 관심을 갖고 지지했었다. 집안에서 독박 육아를 하던 엄마들이 밖에 나와 함께 하면 더 나을 거라 생각했다. 도시와 농촌 어디든 엄마표 육아품앗이가 잘되길 바란다. 머지않

아 육아맘을 돌보는 일을 하게 될 것 같다.

호기심 많은 나는 뭔가에 한 번 꽂히면 그 일에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질 때까지 푹 빠진다. 수없는 실패를 각오하고 기술을 익힐 때까지 연습해야 완성도가 높아지니 거의 비슷한 과정을 지난다. 내게 왜 이런 일들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첫 번째는 나의 잠재성을 확인해 보고 싶고 두 번째는 사람과 일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를 도구로 하여 사람을 돕는 일에서 보람을 느낀다. 그들이 나아지고 치유받는 것을 보는 게 행복하다. 취미를 즐기면서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고 사람들을 만나며 풍성해졌다. 요즘은 글을 쓰면서 취미가 주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

켜켜이 쌓아둔 것

\
생자(공자)

포도 향이 나는 샤프심이 있었던 걸 아시는지. 어릴 적엔 샤프심 통들을 모았었다. 라면 봉지나 화투패를 흥내 낸 것도 있었고, 모양 자체가 아예 일반적인 통과 달라서 원통 모양 뚜껑을 열어야 심을 꺼낼 수 있는 통도 있었다. 알록달록한 캐릭터 아래로 은박 반짝이들이 인쇄되어 있던 통들이 기억난다.

나이를 먹고, 샤프심 통이 가득 찬 상자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릴 때쯤. 나는 다른 것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애정 하는 뮤지컬의 국가별/연도별 녹화본, 신경 쓰이는 배우의 필모그래피, 완전히 산으로 가는 줄거리가 되어버린 영국 드라마의 전 시즌, 락을 듣는 친구들의 이야기에 혹해서 억지로 다

들은 스키드로우의 앨범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오백 기가짜리 외장 하드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다. 언젠가는 전시장 같은 방을 꾸려서, 그 안에 저것들을 실물로 전부 담아 두겠다고 다짐하면서.

좋아하는 것들이 곧 나를 설명하던 시절이었다. 나는 그 방대한 파일들과 샤프심 통 들을 과연 몇 번이나 들여다봤을까.

'물건'이라는 단어가 내게 환기하는 정서는 그렇다. 켜켜이 쌓여 묵힌 것만 같은 것.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몇 번 들춰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나를 구성하는 것들. 나는 아직까지도 물욕을 잃지 않은 사람들을 동경한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로 공간을, 또 자신을 채우는 사람들. 애정 하는 것이 자신에게 어우러지는 순간이 올 때까지.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는 마음

\
소량

어릴 때 선물로 처음 받은 바비인형이 기억난다. 9살 즈음인데 그 인형을 받기 전엔 어떤 장난감을 원하는지도 잘 몰랐다. 받고 나서야 인형을 정말 원했었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았다. 부모님은 내가 그 인형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 난 단 한 번도 인형을 갖고 싶다고 이야기해본 적이 없었다. 부모는 자식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나는 존재 같다.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어머니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무엇을 얻기 위해 떼를 쓰지도 뭔가를 사달라고 얘기할 줄도 몰랐다면 내 어린 시절을 안타까워하셨다.

나에게 물욕은 숙제 같다. 원하는 것을 가져왔

던 경험이 별로 없었던 이유에서였는지, 욕심을 부려 뭔가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인지는 지금에 와서는 잘 기억할 수 없지만, 뭔가 바라는 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았고, 더 달라고 떼를 쓰면 더더욱 안 될 것 같았다. 그럼에도 어릴 적 선물 받은 인형을 보고 바비인형을 갖고 놀던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다는 생각하니 더 소중하게 느껴졌고, 행복감에 젖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옷을 만들어 입고 베게, 이불이며 온갖 장식을 다 만들어줬다. 중학생 때까지도 그 시절 행복감을 준 인형을 곁에 두고 가끔 추억하기도 했다.

성인이 된 이후로는 원하는 것이 생기면 쉽게 취할 수가 있어서 그런지 물건에 애뜻한 마음을 담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요즘은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있어서 원하는 것을 찾아 고르다 보면 시간이 다 가서도 선택하지도 못하고 포기할 정도이다.

현재 내가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존재는 아이. 요즘 태어나는 아이 10명 중 1명은 시험관 아이로 태어난다는 통계가 있다고 들었다. 내가 설마 난

임일까?라는 안일한 생각이 있었다. 생각 외로 처음 난임 판정을 받았을 때, 깊은 슬픔이나 속상함은 못 느꼈다. 하지만 앞으로 나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은 늘 내 곁을 따라 다닌다. 6개월 넘게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 중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 아이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선물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는 존재와 빨리 만나고 싶다.

또 다른 나

\ 동틀

여행을 자주 다니다 보니 잡다한 상품들을 많이 산다. 분명 우리 동네에도 찾아보면 있을법한 것도 그곳에서는 더 특별해 보이는 건 왜일까? 선물해야지! 이건 특이해! 여기서만 파는 거야! 하며 들어온 기념품들 며칠 동안 주인 가까이 머물다 어느새 서랍 속에 짐 보따리에 휩쓸려 사라진다.

청소를 하다, 물건을 찾다가 숨어있던 것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중에 아끼는 것은 덕유산국립공원 정상에서 사 온 기념품이다. 빨강 바탕에 덕유산 등산로 지도가 그려져있는 약품 향이 폴폴 나는 뽀뽀한 기념 수건. 그 촌스러운 자태가 마음에 든다. 무겁지도 않고 땀을 닦을 수도 체온을 유지할 때도 쓸 수 있다. 이건 필히 사야 해. 4년 전 그날의

겨울바람을 담은 수건을 보면 그 시간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굽이굽이 물결치며 곡선을 그리는 산봉우리, 온 몸을 뽐뽐 감싸고 케이블카를 타고 내리던 관광객들. 하얀 설경 속에서 호호 입김을 불던 순간들이 스쳐간다.

평소에 쓰지도 않으면서 관광지에서 꼭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 무언가를 남겨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것 같다. 호객행위에도 기꺼이 주머니를 열 준비가 돼있다. 눈이 머문다는 건 망설이고 있다는 거다. 그 순간을 포착하고 알아채는 사장님들의 장사 수완이 놀랍다.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 봉지가 득 들고 나올 수밖에~ “그분들도 먹고살아야지.” 하다가 막상 집에 와서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버리지 못하고 물건에 집착이 강하다. 그 이유는 사랑받고자 하는 마음도 강해서이다.

자꾸만 사고 또 사도 허한 건 왜인지 생각해 본다. 존중받지 못하는 마음들이 내 머릿속 곳곳에 잠들어 있다가 조그만 호의에도 착각을 하는 것 같

다. 물건을 파는 행위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짓는 미소에도 의미 없는 만남에도 집착하는 나, 사랑받지 못한 마음을 물건에 투사해서 위로받고 싶은 것 일지도 모른다.

글을 쓰다 고개를 든다. 장식대 위에 나를 응시하는 무언가가 있다. “저건 또 언제 샀더라?” 노트북 거치대가 엉뚱한 곳에서 나를 바라본다. 한 쪽 구석에서 웅크리고 방치된 나의 모습이 보인다. 내가 사 온 물건들은 또 다른 나였다.

아무것도 아니다

\
타다닥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있을까?

난 이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한 개체가 가진 것들을 무용하게 만든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없다.

그 개체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말이 있다. 그 다양함을 한마디로 표현하기에는 우리가 가진 언어가 부족하다.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말로 한 개체를 묘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우리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표현할 때 멍뜬그린 표현을 사용한다.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 아니야”.

이 말은 듣는 이가 대화를 진행하기 어렵게 만든다. 듣는 이가 그것을 생각하기 어렵게 만든다.

더 나아가서는 듣는 이를 무시하는 표현이다.

어떤 것을 말로 표현할 때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노력은 우리의 언어를 풍요롭게 만든다. 언어를 가치있게 만든다.

우리는 언어를 사용할때, 그 언어가 가진 참맛을 느끼고 음미해야 한다.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다보면, 사용할 수 있는 언어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언어란 그런 것이다.

적어도 이 글을 읽는 독자들만이라도 누군가 “그게 뭐야”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물건

\
잭잭

-꼬여버린 것들

원격으로 일을 하고 있기에, 코워킹 스페이스를 찾아 일을 했다. 날이 좀 풀려서 인지 사람이 많았다. 빈공간을 찾아 자리를 잡아 노트북을 셋팅하고 모니터를 연결하는데, 모니터 선이 꼬여 버렸다. 순간 엇그제 꼬여 버린 대화가 생각났다. 나는 그냥 직설적 비판과 질문을 한 것인데, 상대는 꼬아서 해석하더라. “잭잭님은 늘 써캐스틱(sarcastic)하게 말씀 하시는데요.” 그게 아니라고 말을 했지만, 상대방은 이미 나를 혹은 내 말을 아니꼽게 보는 듯했다. 중요한 관계라면 꼬인 줄을 풀어내듯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게 아니라면

아니꼬워 하지 말고 그냥 놔두는 편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다.

-활용이 힘이다

사용료가 저렴한 공간이라 그런지, 그곳의 의자는 딱딱하고 불편하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으면 엉덩이가 입을 내밀고 툭툭거리곤 했다. 마침 집에 있던 천 원 짜리 (사실은 어느 행사장에서 무료로 받은) 간이 스티로폼 방석을 까니까, 오 이건 다른 세상이다. 엉덩이와 허벅지가 고맙 단다. 신발도 마찬가지로. 2천원짜리 (역시나 어느 호텔에서 챙긴) 헝겊과 스티로폼 재질의 슬리퍼를 신으니까 그렇게 편할 수 없다. 그런데 저런 (아마도 누구나 집에 한 두 개쯤은 갖고 있을 법한) 소품을 활용하는 사람은 나 밖에 없다. 다들 그냥 그대로 적응하고 지내는 것일까? 기본설정의 안락함, 변화의 귀찮음.

학교에서 배운 수많은 지식, 살면서 읽은 수많은 책과 영상매체를 통해 접한 방대한 정보들. 그

중 제대로 활용하는 것은 몇 퍼센트나 될까? 지식을 쌓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을 일상에 잘 적용하는 것 아닐까 싶다. 1,2천 원짜리 작은 소품이 업무(보다 정확히는 양쪽 엉덩이와 양발에게)에 쾌적함을 가져다 주었듯이, 단편적 지식들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에 긍정적 영향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높지대를 지나서

\
오로라

요즘 들어 남편은 내가 하는 일이라면 팔을 걷어 부치고 도와준다. 내년에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동의한 건 아니지만 내 출퇴근길 운전을 맡아 주겠다고 할 정도다.

지난 6월 강원도 홍천에서 내 지인들과의 모임을 앞두고 장거리 운전을 고민하면서. 자전거 라이딩을 계획한 남편에게 볼멘소리로

“당신은 내 매니저라면서요?” 그러자 그가 같이 가자고 하였다. 본인은 그곳에서 라이딩을 하면 된다며 한 발 양보한 것이다. 우리 부부는 차 뒤에 자전거를 매달고 새벽 6시에 홍천으로 출발했다. 나는 나대로 모임에 즐겁게 참여하였으나 더운 날이어서 그에게 라이딩은 무리였나보다. 그로부터 3일째 되

던 날, 그가 점심 식사 도중 저혈압 쇼크로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이 발생하였다. 급한 전화를 받고 병원에 도착하여 얼굴을 보고 나서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24시간 연속 심전도 검사, 심장 부하 검사를 받았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했다. 다만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아 관리가 필요하다.

나는 놀란 가슴에 그 후로도 2주간 속울음을 삼키며 쉬 진정되지 않았다. 흥천에 같이 가자고 해서 남편이 위험해졌던 거라며 내 감정이 늪에 빠져버린 것이다. 앞으로 더 가치있게 살라는 뜻으로 받고 감사하기로 하면서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왔다. 관리 값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니 서로 매니저로서 챙겨주며 살기로 하였다.

나 역시 혈당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어 당뇨식이와 운동을 병행하며 실천해왔다. 그 일이 있던 지 다섯 달이 지났다. 매 끼니 체질식으로 정성껏 실천했는데 당화혈색소 수치가 부부 모두 정상 범위라고 하여 감사했다.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운전할 때 가까운 것을 보면서도 먼

곳도 바라봐야 하듯이 인생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면서 운전하리라.

이번 일을 계기로 몸과 마음의 관계를 세줄 일기로 적어보았다.

마음이 몸에 담겨 있어 몸과 마음은 떼 수가 없구나.

몸이 따르는 건 마음이니 강한 심령이 필요하다.

몸을 돌보려면 먼저 마음을 들여다보고 돌보아라.

작은 생명체

\
타다닥

그 작고 여린 몸이 움직이는 걸 보면 매우 신기하다.

한입이라도 더 먹기 위해 움직여보는 조그마한 입.

한 번이라도 더 쥐어보려 움직여보는 조그마한 손.

한 번이라도 더 뺏어보려 움직여보는 조그마한 발.

온전히 내 것임을 확인하려 있는 힘껏 요동치는 몸.

그 조그마한 얼굴에는 다양한 표정이 있다. 울고, 웃고, 찡그리며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내보인다.

아직 자기 것인지도 모르는 팔과 다리를 힘껏 움직여 보기도 한다. 움직이던 자신의 팔다리에 놀라서 울기도 한다.

몸에 힘을 줘서 웅크리기도 하고, 기지개를 켜듯 몸을 뻗뻗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용

을 쓰다 보면 지쳐서 잠이 든다. 배가 고파오면 다시 신나게 운다. 나를 혼비백산하게 만들고, 다시 웃으며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 작은 생명체는 나의 우주에 들어와 나의 전부가 되었다. 나의 우주를 커다란 기쁨으로 가득 채운다. 나를 풍요롭게 만들고, 든든하게 만든다. 나의 삶에 이유를 만들어 주고, 나를 어른으로 만들어 준다. 고작 몇 kg, 4주가 안된 이 생명체의 움직임은 나에게 멋진 춤이 되고, 울음소리는 멋진 노래가 된다. 지금도 작은 숨소리에 귀 기울이며, 이 작은 생명체를 축복해 본다.

가을 아침 산책

\
소량

눈이 부시다. 섬광이 확 생겼다가 이내 사라진다. 햇살도 들지 않았는데 눈이 떠졌다. 어깨가 빠근하고 목도 뻣뻣하다. 뻣뻣해진 손과 발을 돌려가며 허리와 함께 펴본다. 침대 위 손 한 번 짚고 일어나 본다. 다시 또 옷차~ 허리에 힘을 들여 발바닥을 바닥에 붙인다. 목이 마르다. 바삭 말라 버린 입술을 적시기 위해 식탁에 놓인 플라스틱 생수통 안에 물을 마시고는 티셔츠에 왈각 쏟아버린다. '눈 좀 뜨고 마시자. 쫘.' 티셔츠에 젖은 물을 털러 화장실로 향한다. 이미 다 흡수~ 괜히 툭툭 털어낸다. 평소보다 세진 수압의 수도물을 틀어놓고 고양이 세수를 한다. 수건을 생략하고 남은 물을 흡수시켜 메디컬 라인 약건성용 로션을 바른다. 두꺼운 후드

티를 덧입고 다시 물을 한 모금 마신 후 마스크를 끼고 신발장에서 창 두께가 있는 신상 카라멜색 운동화를 꺼내 신고 현관문을 나선다. 띠로로로~ 닫히는 전자음을 뒤로하고 아파트 단지 문밖으로 나가 산책을 시작한다. 그사이 해가 뜨고 바닥엔 촉촉하게 비들이 낙엽을 바닥에 붙여놓았다. 비가 그치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 마스크를 잠깐 내려 콧속으로 촉촉한 낙엽과 풀 냄새를 들이켜 본다. 메말랐던 콧속이 금세 촉촉해진다. 떨어진 단풍잎들의 색이 선명하니 예쁘다. 사진으로 연신 담아낸다. 참새와 직박구리가 지저귀는 소리가 안개와 공기 속을 파고들어 틈을 메운다. 사람들의 온기가 들기 전 새벽은 새들의 세상이다. 곧 귀가 따가울 정도로 지저귀는 참새떼가 적당히 앞서 우거진 나뭇가지 사이로 또, 뚱뚱한 나무들 사이로 왔다 갔다. 잘하면 보일 것 같은데도 열기설기 가지가 많은 뚱뚱한 교목들속 참새는 밖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참새들이 수줍어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생존에 이유가 있겠다 싶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 안개가 걷

했다. 발걸음을 공원으로 종종거리며 재빠르게 경
보로 걸음걸이를 바꾼다. 잔디광장을 따라 걷다 보
니 찬 기운이 서서히 사라지고 손바닥과 발바닥이
따뜻해지고 있었다. 이마에서 김이 나는 것도 같다.
이 정도면 운동이 됐겠다 싶어 주머니에서 손을 빼
고 기지개를 켜본다. 어느새 속눈썹엔 송글송글 이
슬이 맺혔다. 눈을 비비며 이슬을 떨어내고 사람이
없는 휴일이라 마스크까지 열어 털고는 집으로 향하
다. 오롯이 혼자인 나와 내 몸이 주변을 느끼며 집
중할 수 있는 가을 아침 산책. 요즘 있었던 가장 평
화로운 하루의 시작이었다.

지구라는 그릇

\ 동틀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고 있으면 그 안에 세상이 담겨있다는 걸 느낀다. 검은 눈동자는 맑고 투명해서 거울처럼 반사된다. 호기심 그득한 얼굴에 작은 우주 두 개가 콩 박혀 있다. 하나는 내부를 또 하나는 외부로 향한 것이다. 예쁜 것만 좋은 것만 보여주면 좋을 텐데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 2021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마스크를 끼는 모습이 일상일 것이고 뿌연 하늘과 도로에 가득한 자동차들을 당연한 세상으로 여길 것이다.

그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까? 인간의 이기심이 어디까지 온 걸까? 결국 다음 세대에게 보여 주고 싶은 건 무엇일까? 아이를 낳기 전에 한 번도 고민을 해 본 적 없던 것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확장되는 느낌이다. 내 몸을 통해 나온 아이들은 내가 자랐던 시대보다 더 풍요롭고 편리함을 누리지만 반면 오염되고 삭막해진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내느라 애써야 할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 내가 태어난 나라, 내가 속해있는 지역, 내가 생을 이어가는 집, 내 몸을 둘러싼 작은 세상. 결국 나도 그저 한낱 나무였을 수도 꽃이었을 수도 물고기였을 수도 있었던 작디작은 존재라는걸~ 인간으로 태어남에 우쭐대지 말자. 내 몸과 같은 지구에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자연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야 한다면 “할 수 있는 만큼” 실천을 해보자! 가까운 곳은 걸거나 자전거 타기, 카페에 텀블러 가져가기, 필요한 만큼만 소비하기(대형마트보다 동네 마트 이용). 샤워 시간 줄이기(30분에서 15분으로). 지속 가능한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다 보면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나아질 거라 믿는다. 지구라는 그릇에 욕심은 빼고 사랑은 더하자.

빛과 상환

\
생자(홍자)

'지방간이 있으시네요. 혈당도 높은 편이어서 관리 안 하면 당뇨병에 걸릴거예요.'

아직 20대인 나에게 청천벽력같은 소리였다. 건강하다고 믿으며 몸을 혹사시킨 대가였다.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의사의 말이 빛 독촉 같이 느껴졌다. 있는 건강을 다 뺏겨냈으니 이제 갚을 때가 되었다는 알람 같았다. 의사가 제시한 이자 및 상환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어려웠다. 바로 다이어트였다. 다이어트만 한다면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이 될 수 있고, 지방간을 완전히 없애긴 힘들어도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평생 다이어트를 하며 살긴 했지만,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 적은 없었다. 단지 원하는 외모를

만들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감행했던 것이라 무리할 정도로 절식하여 건강을 해친 적도 많았다. 그러다 억눌렀던 욕구가 폭발하면 입에 맞는 대로 마구 먹었다. 그러면 뺏던 몸무게의 2배로 붙어있었다.

처음 진단을 받고 바로 달려간 곳은 서점이었다. 건강하지 못한 다이어트가 내가 아는 다이어트의 전부였기 때문에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책의 도움을 받아보고자 했다. 입에 맞는 대로 먹는 습관을 줄이기 위해 다이어트 레시피북을 사서 직접 요리를 해 먹기 시작했다. 무리하게 절식하지 않고, 대신 천천히 의식하면서 먹는 습관을 들였다. 운동 없이 그렇게 두달을 하면서 몸무게의 앞자리를 바꾸었다.

식단만으로 한계를 느끼고 운동을 배우고자 PT를 등록하게 되었다. 아주 옛날에 PT를 받았을 때는 선생님이 무리하게 운동을 시키는 바람에 발목이 자주 빠고 아팠었다. 나에게 PT란 그저 힘들게 살 빼는 운동 그 자체였는데, 이번에 등록한 PT는 결이 달랐다. 내 몸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불편하고

뭉친 곳에 집중을 하며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운동으로 휘어진 다리를 다시 돌리고, 부족한 코어를 채우게 되었다. 몸에 집중하면서 운동하니 내 몸을 온전하게 보살피는 느낌이 들었다. PT 선생님의 도움으로 식단도 20일째 매일 기록하고 있다.

인생 처음으로 건강을 위해 내 몸과 내 입에 들어가는 것에 신경 쓰며 살고 있다. 이 일은 사실 처음에 몸에 진 빛을 상환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으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마냥 밍기만 했던 나의 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과정이 된 것이다. 처음 병을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좌절스러웠으나, 갚을 수 있는 빛이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몸에 진 빛을 조금씩이나마 갚아나가고 있어서 뿌듯하다. 앞으로 이자가 더 불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갚아나가야겠다.

고양이의 위로

\
벽난로

밤늦게 집으로 가는 길 어디선가 '야옹' 하는 소리가 들렸다. 주변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걸음을 멈추자 다시 한번 '야옹'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쪽을 자세히 살펴보니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다. 종종 보이던 동네 길고양이들과 달리 작고 야위어 보이는 고양이였다. 고양이는 눈이 마주치자 더 열심히 '야옹 야옹' 했다. 배고프다는 것 같았다. 나도 너무 피곤했지만 그래서 더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고양이가 먹을만한 것을 찾아보니 고양이용 참치캔이 있었다. 그것을 갖다주니 한 캔을 허겁지겁 다 먹어치웠다. 목이 마를 것 같아 물과 캔 하나를 더 사와서 주었더니 그것도 남김없이 다 먹었다. 그러곤 기

분이 좋아졌는지 내 바짓단에 얼굴을 부비며 '야옹 야옹' 애교를 부렸다. 그게 그 아이와의 첫 만남이었다.

그날 이후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또 만날 수 있을 길 기다리게 됐다. 언제든 만나면 주려고 고양이 사료와 간식도 조금씩 가지고 다녔다. 그러다 우연히 마주치면 이번엔 내가 '야옹아' 하고 불렀다. 그럼 고양이는 꼬리를 뺏뺏하게 들고 '야옹' 인사하며 다가왔다. 그렇게 그 작은 존재에게 나날이 정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 날따라 가방 안에 고양이 먹을 것을 챙기는걸 깜빡하고 말았다. 이런 날 고양이를 만나면 어떡하지 걱정하며 집에 가고 있는데 길목에서 '야옹'하는 소리가 들렸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나를 향해 반갑게 다가오는 고양이를 보니 난처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미안해. 오늘은 먹을게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자 고양이가 반짝반짝 빛나는 검은 눈동자로 나를 잠시 바라보더니 나의 코에 자기 코를 가만히 맞닿는게 아닌가? 마치 “괜찮아” 라고 말해주

듯.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다. 그리고 나도 몰랐던 사실을 깨달았다. 사실 나는 이 작은 존재 앞에서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너도 내가 먹을 것을 주지 못하고, 도움을 주지 못하면 실망하고 날 떠나가겠지?"

그러나 고양이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듣기라도 한 듯 깊은 눈으로 나를 다독여주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몸짓으로 위로해주었다. 그 순간 나는 그 작은 존재의 품 안에 다정하게 감싸 안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삼겹살이 0겹살이 되는 날

\
잭잭

똥배는 다수의 현대인이 겪는 크나큰 골칫거리임이 분명하다. 난 얼마 전까지 기름진 삼겹살의 소유자였다. 코로나가 가져온 스트레스와 우울감. 이에 대한 자연스런 반응은 급격히 늘어난 식탐이었다. 고기, 과자, 밥, 과자. 후식은 달달한 과일. 거기다 코로나 무섭다고 체육시설에 가지도 않은 지도 1년반이 다 되어갔으니.... 결과적으로 가발을 쓰고 밖에 나가면 임신 3개월 정도라고 속일 수 있을 정도로 배가 부풀어 올랐다.“찌익~” 안 입던 바지를 꺼내 입었는데, 엉덩이가 시원하게 보이게 찢어져버렸다.

‘아, 이러다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처럼 되는 건 아닐까??’

시퍼런 공포감이 엄습해왔다. ‘고혈압, 심장질환, 뒤통뒤통, 이성의 냉랭한 눈빛’

“안돼~~~!”

2개월 후.

“저는 잭잭님의 신체에서 배의 지방을 총괄하는 복부지방 담당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날 복부지방의 겹살 수치는 약 2.1겹살 수준으로 현격히 감소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구요? 잭잭님은 매일 많은 시간을 걷기에 할애했습니다. 차를 타는 대신에,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녔죠. 적게는 5천보에서 때론 만보정도 걸으니 지방이 감소할 수 밖에는요. 앞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0겹살을 목표로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 합니다.”

0겹살 그날이 올때까지 걷고 또 걷자. 진핑아, 너 미세먼지 그만 좀 날려 보내고!

육아의 첫인상

\
동틀

결혼 후 처음 살게 된 화성. 낯설지만 설렘과 행복한 나날들만 펼쳐질 거라는 아무진 꿈도 있었다. 남편의 회사와 30여 분 거리. 그저 출퇴근이 가깝겠다는 이유로 이곳에 정착했다. 날 알아주는 사람은 남편 회사 동료의 기혼부부들과의 만남이었다. 그나마도 아이를 낳고 점점 외출도 관계를 맺는 것도 소홀해지면서 나의 세상은 점점 작아지다 못해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가 한결같이 회식에 모임에 나가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립감과 우울감은 쌓여갔다. 큰아이가 돌쯤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행복감보다 삶에 찌들어 가는 나를 발견했다. 출산 후 여전히 두 아이의 육아는 내 몫이었다. 한 명은 등에 업고 한 명은 유모차를 태우고 동네 산책하는 것조

차 커다란 장애물이었다. 혼자였던 삶이 셋이 되니 늘 피곤함에 시달렸다. 거기다 대화 상대는 말이 안 통하는 아이뿐. 재우고 달래고 먹이고 놀아주고 씻기고 안아주고 24시간, 365일(생후 3년 정도)이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간다. 나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내 주변에 가족들도 나와 똑같이 겪어냈겠지? 근데 나만 이상한가? 왜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지? “내 일이 아닐 거야!”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하며 현실을 외면했다는 걸 깨달았다. 눈앞에 닥쳐보니 태풍급이다. 나를 구원해 줄 곳은 오직 어린이집뿐. 남편은 아직 3살 아이가 어리지 않냐며 눈을 흘긴다. 누군가는 워킹맘도 아닌데 왜 어린이 집을 보내냐고 하기도 한다.

내가 살아야 아이도 산다. 내가 숨을 쉬어야 아이도 숨 쉴 수 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처음 갔을 때 마음이 아프고 엄마가 부족해서 남의 손에 맡기는 것 같아 죄책감도 생겼었다. 그런 시간들이 지나 마음이 무뎠진 건지 조금씩 엄마 자리도 무관심 속에 익숙해져간다. 아무도 엄마의 마음을 어려움을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 궁금해하지 않고 경제적인 가치로 여기지 않는다, 속마음을 편히 털어놓고 얘기할 상대도 없다. 내가 나를 알아주고 보듬어 줄 수밖에.

그 동굴 같은 시간들이 지나자 이렇게 글을 쓰고 조금씩 세상과 접점을 찾는 나를 발견했다. 조금만 귀를 기울이고 시간을 주고 전문가의 도움의 손길이 스며든다면, 육아의 첫인상도 바뀌는 날이 오지 않을까? 엄마가 일상에 매몰되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변의 격려 어린 시선과 응원이 있어야 육아가 개인의 문제라는 인식이 조금씩 바뀔 것이다. “당신도 처음에는 아이였지 않는가?”누군가에 손에 기대어 먹고 자고 입었을 것이다. 정부와 사회의 관심 울타리 안에서 엄마들의 육아가 더 이상 외롭고 힘들지 않기를 바라본다.

극단의 오류

- 그 누구도 괜찮지 않은 결정

\
소량

불편함과 안일함. 소란과 고요. 예민과 둔함. 부족함과 과도함. 다혈질과 참을성 갑. 게으름뱅이와 워커홀릭. 고생과 안일함. 이재명과 윤석열, 지하방과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집. 이마 주름 가리려 앞머리를 잘랐는데 클레오파트라가 되는 것, 보톡스 맞아서 눈에 미소가 사라지는 것. 키가 작아서 줄여야 할 옷이 많은데 돈이 없어서 하나만 선택해야 함, 소맷단 자르기와 바짓단 자르기. 시험을 보는데 계속 낙제라서 합격 될 때까지 계속 시험 봐야 하는 아이와 1등 해서 시대회, 도대회, 세계올림피아드까지 계속 시험 봐서 1등을 해야만 하는 아이. 10인분을 먹어야 돈을 받지 않는 가게와 10시간 설거지하면 밥과 숙식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가게. 살을 빼기

위해 운동에 돈을 쓸 건지,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돈을 쓸 건지. 커피에 곁들일 저지방 우유를 살 건지, 달콤하고 꾸덕한 연유를 살 건지.

결정을 꼭 해야 한다면..... 위에 나온 어느 하나도 결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 우유부단한 성격에서 나오는 결정장애일 수도 있겠지만, 극단적인 결정이 둘 다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겠다고 판단된다면 결정하기를 포기하게 된다.

"넌 보면, 극단적이야. 중간이 없어."

"회색분자! 이도 저도 아닌 박쥐!"

어느 한 부분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단정적으로 말하고는 그게 전부인 양, 선부르게 판단하고 결론 지을 것이다. 나 자신조차도 심상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깨닫기까지 긴 시간이 걸린다. 나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스스로 알아가고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을 때의 생각이나 행동이 왜 그렇게 나타나는지 좀 더 서로를 관찰하고 이해하며 바라봐야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될 것이

다. 그게 힘들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단정적인 판단을 보류하고 결론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만나는 곳엔 내가 모르는 상대의 마음과 사정이 있다. 첫인상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지는 않다. 선부른 판단이 그 사람을 이해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p.s. 시작과 끝. 짧은 만남과 긴 이별. 아쉬움

누군가에 대한 스케치

\
벽난로

미술관 지킴이 아르바이트 첫 출근날, 한 작품 당 두 명씩 근무한다는 설명을 듣고 근무 위치에 갔는데 아무도 없었다. 근무 배치표에는 내 이름과 '김민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매니저님께 여쭙보니 그분이 늦잠을 자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게으르고 미적미적대는 남자아이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그렇게 한 시간쯤 혼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여자가 다가왔다. "여기 김다희 작가님 작품 맞죠?" 나는 관람객인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다고 했다. "아, 앉으세요. 저 여기 같이 근무 서는 김민수예요." 그분은 의자에 앉더니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만 했다. '남자인줄 알았는데

여자였네. 앞으로 계속 같이 일할건데 말이라도 걸어봐야 하나?' '핸드폰만 보는거 보니 자기한테 말시키지 말라는 건가?' 나는 혼자 상상을 펼쳤다.

결국 나는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아무런 말도 걸지 못하고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혼자 점심을 먹러 나왔다 '그래, 일하러 온 거지 사람 사귀러 온 거 아니잖아' 나는 동료들과 시끌벅적 식사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도카니 혼자 앉아있었다. 그런데 그때, 식당 문이 열리더니 그 사람이 들어왔다. 왜 하필 여기로! 라는 생각과 함께 왠지 민망한 마음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피하는데 그 사람이 "어?"하면서 내 테이블 쪽으로 걸어왔다. "여기 오셨네요. 같이 먹어도 될까요?" 그리곤 아무렇지 않게 내 앞에 앉았다. 그 모습을 보니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살짝 풀리는 것 같았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아이에 대해 새롭게 보이는 것이 있었다. 머리를 노랑게 염색하고 아르바이트 첫날부터 지각하는 무

책임한 아이라는 첫인상이, 미술을 전공해서 헤어스타일도 감각적이고 비대면 수업을 듣다보니 밤낮이 바뀌어버린 평범하고 귀여운 대학생으로 변했다.

점심을 먹고 돌아와 우리는 다시 각자의 자리로 가서 근무를 시작했다. 어색하고 불편했던 오전과는 달리 마음이 한결 편안했다. 나는 문득 내 마음속에도 인물화들이 전시된 미술관이 있다면 어떨까? 상상해보았다. 누군가에 대한 첫인상만으로 그린 그림은 빠르고 거칠게 그린 스케치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그림은 점점 다듬어지고 완성되어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앞으로는 내 마음속에 스케치로 남은 그림보다는, 가까이 다가가서 오래 바라보고 그린 세밀화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즐거운 설렘과 만남

\
생자(동자)

어렸을 적, ‘첫’ 만남은 무겁고도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어색한 공기로 가득한 공간, 긴장한 얼굴들, 말 걸까 말까 눈치 보는 마음. 그러다 눈이 마주친 누군가와 눈인사 혹은 이름을 물어본다.

“안녕? 너 이름이 뭐야?”

이내 어색해진 두 사람 사이의 침묵. 특히나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첫’ 만남은 두려움의 순간으로 기억된다. 어렸을 때 나는 ‘첫’인상‘에 대한 긴장 때문에 나를 좀 더 ‘오버’해서 보여주곤 했었다.

‘나 이렇게 밝은 사람이야’, ‘나 이렇게 웃긴 사람이야’라는 ‘첫’인상을 상대에게 남김으로써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노력은 오히려 나를 솔직하게 보여주지 못하는 방법이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피곤하게 했다.

사실은 낮을 가리는 성격이고, 상대를 천천히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상대에게 맞춘 첫인상이 아닌 그 순간의 나의 모습으로 상대를 대해주고 싶었다.

'사실은 낮을 가려', '조금 진지한 사람이야', '사람을 좋아하지만 다가가는 데 시간이 걸려' 등등 나라는 사람을 '솔직'하게 그냥 보여주었다. (사실 평소 장착하지 않는 '유머'를 조금 장착하곤 한다) 그때부터였다. 상대에게 솔직한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몇 년간 그러한 나의 노력은 이상하게 만남에 대한 색다른 경험을 가져다주었다. 첫 만남이 설레게 된 것이다. 여전히 '첫'인상을 남겨야 하는 자리는 언제나 두렵지만, 아이러니하게 설렘을 가져다준다. '첫'인사를 나누고 상대와 서로 눈웃음을 건네었다

면, 나는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가득 차 설렘으로 마음이 요동치고 있을 것이다. 저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궁금해진다. 나의 이야기보따리와 저 사람의 이야기보따리를 빨리 꺼내 봤으면!! 하는 설렘이랄까.

앞으로 나의 ‘첫’인상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남기고 싶다. 그 첫인상은 꾸며낸 모습이 아닌 온전한 나의 모습이길 바란다. 그래서 이번 첫 만남이 기대되고 설렌다.

첫인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
타다닥

인상은 얼굴의 생김새를 말한다. 첫인상은 누군가의 인상을 보고 짧은 시간에 느끼는 감정을 말한다. 즉 상대방의 얼굴이나 걸모습만 보고 생기는 편견일 수도 있다.

그래서인지 첫인상이라는 단어가 첫사랑과는 다르게 긍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좋은 첫인상을 위해서 노력한다. 다른 이에게 내 첫인상이 좋지 않다면, 그 기억은 나쁜 편견이 되어 시간이 흐르더라도 다른 이에게 느껴지는 내가 될 것이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굳이 남에게 나쁘게 보이고 싶지 않다.

그럼 나는 누군가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들을 수 없다.

나를 잠깐 본 사람에게도 물어보기 어려운 나의 첫 인상은 어떨까? 나와 앞으로도 봐야 하는 지인들에게 “내 첫인상이 어땠어요?”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객관적인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나를 잠깐 볼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할 텐데, 이것을 묻는다면 이 또한 기인으로 비칠 것이기에 객관적인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내 첫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까? 내가 첫인상을 위해 노력하는 건 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내가 내 첫인상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나는 첫인상을 위해 노력하는데, 결국 다른 이에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없다. 첫인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남은 사람들은 남고, 갈 사람은 갈 텐데.

답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잠시 끄적여봤지만, 역시나 답이 나오지 않는다. 나는 오늘도 답을 알 수 없는 생각을 하며, 좋은 첫인상으로 남기 위해서 노력한다.

고마워, 첫인상

\
오로라

32년 전 4월 어느 날“ 당신은 있는 그대로도 너
무나 소중한 사랑스러워”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
났다. 어릴 적부터 결혼할 사람과 연애하는 게 좋다
고 생각한 나, 선을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

첫날 세 시간 동안 서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
가치관 등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다. 나름대로 그의
목소리와 성품을 가늠할 수 있었다. 내가 말을 잘
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로 경청의 달인으로 보였
다. 그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전부터 “이 사람이
야~!!” 싶었다. 가식이 없고 배짱이 있으며 순수한
면이 맘에 들었다. 어디 가서 말할 수 없는 비밀이지
만 그때 벌써 신랑감으로 “찜”을 한 것이다.

나는 추진력이 강한 편이나 섬세함은 부족하

다. 반면 그는 섬세하고 생각이 깊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주저하는 면이 있다. 그는 나의 장점이 좋아 보였다고 한다. 우리는 서로 보완하면 더 좋은 연인이 된 것이다.

내가 보기에 그는 체면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다. 반면 나는 아주 어릴 적부터 무엇이든 자기검열을 하며 살아왔다.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다독이는 사람을 만난 거다. 나를 온전히 수용해주는 사람, 내 편이 되어 생각하고 배려해주는 사람. 그를 만나면서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고 진정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다.

네 자녀 육아 기간이 힘들긴 했지만, 그와 결혼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참 감사하다.

평이한 첫인상이 고맙기까지 한 것은 하마터면 숨겨진 보물을 놓칠 뻔했기 때문이다. 처음 만났을 때를 제외하면 남들이 흔히 말하듯이 내 눈에도 미남이다. 잘생긴 사람은 얼굴값을 한다던 어른들 말씀을 너무 깊이 새겨들어서일까? 만약 처음부터 잘생긴 미남으로 봤다면 아마 연애를 시작하지도 않았

을 것 같다. 무리한 결론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처음 만났을 때 미남으로 보이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도를 아십니까?
아니면 교회는 다니시구요?

\
잭잭

강남역 근처 어딘가.

길거리 2인조: “저기요, xx라는 건물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잭잭: “아, 그게 아마 저 골목에서 왼쪽으로 돌아서 쪽 가시면 될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조상님 얘기를 들어 보셨나요?”

“네?” ‘뭘 dog 수작이나.’ “아, 저 바빠요..”

“조상님께 제사를 드리셔야 할 것 같아요.”

(한여름 음식에 달라붙는 똥파리를 쫓아내듯이) 손을 휘휘 저으며 탈출한다.

누구에게나 저런 경험은 한 두 번은 있을 것이다. (물론 마동석 같은 포스를 갖고 있는 자 제

외) 그런데 본인의 경우에는 저런 적이 한 두 번이 아닌 것이 문제다. 총 세어보면 한 열 번 이상은 될 듯. 코로나 이전에도 방돌이, 집돌이, 히키코모리 생활방식을 선호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외부활동보다는 집에 있는 것을 선호하는 편인데, 저 정도 수치가 나왔다는 건 어지간히도 잡종교인들이 들러붙었던 얘기이겠지.

외고 준비 영어 학원.

잭잭: “쏟라쏟라. 알겠니? 쏟아라라라라 요 요요. 그래서 이걸 이런거란다.”

학생A: “네. 근데 선생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아니, 갑자기 왜?”

“아, 선생님 왠지 교회 잘 다니실 것 같아요.”

"아...그렇구나..."

첫인상이 좀 선하다 랄지 남의 말을 잘 믿을 것 같다든지. 혹은 똑똑해 보인다는지 그런 얘기를 들

은 적이 있다. 현빈이나 원빈에 비해서는 안타깝게도 잘생김이 1%정도 부족하지만 인상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 다행이다. 첫인상 때문에 손해본 적은 없으니까. 그나저나 첫인상, 관상, 족 이런 거 대충은 맞지 않나? 나름 축적된 인생 경험에 의한 것이니까. 물론 첫인상과 다른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어떤 일이든 예외라는 게 있는 법이니까.

사사로운 사이

© 경기문화재단, 2021

기획 경기문화재단

총괄 주홍미 문화예술본부장

책임 임은옥 생활문화팀장

사업진행 조은정, 김가영, 전현수, 정다운, 현재원

사업운영 송재은 프로젝트임시 project_imsi@naver.com

참여(글) 동틀, 벽난로, 생자, 소랑, 오로라, 잭잭, 타다닥

디자인 송재은 프로젝트임시

이 책은 고운 바탕 서체를 사용하였습니다.

발행인 강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16614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166

www.ggcf.kr / www.glife.ggcf.kr

발행일 2021.12.10

ISBN 978-89-999-0417-2

본 서적은 2021 사사로운 사이 [글쓰기] 사업 진행 및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경기문화재단에서 발행하였습니다. 본권에 실린 글은 경기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